



한국의 보물, 해인<31>

한국불교의 해인신앙의 성립

(지난호에 이어서)

한국종교사에서 해인신앙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해인신앙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한국종교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첩경 가운데 하나이다. 애초에 『화엄경』을 한역(漢譯)하는 과정에서 해인(海印)이라는 용어가 조합된 이후, 해인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의상이 『화엄경』의 내용을 집약한 「해인도」를 저술한 일에서 한국불교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로 평가될 해인신앙이 출발하였다. 이후 「해인도」의 도상(圖象)을 전법(傳法)의 상징으로 간직했던 의상의 제자들에게 의해 구체적인 실물의 형태로 만들어진 해인은 대대로 계승되었다.

그 후 의상의 법손인 신림이 가야산에 해인사를 창건한 일에 연유하여 해인은 불교 신자 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매력적인 보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경향은 해인사의 창건 연기설화와 해인설화가 만들어지고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해인사와 연관되어 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난 것은 해인이 불교 교리에서 연유했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임진록』에 해인이 서산대사가 사명당에게 전해 준 신물(神物)로 기록되어, 불교 승려들 사이에 비전(秘傳)되는 성스러운 보물이라는 관념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해인신앙의 연원은 불교 교리였다. 그리고 『화엄경』이 유포된 세계의 여러 지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해인신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해인신앙은 한국불교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제3부 해인신앙의 전개과정과 종교적 의의

해인은 불교의 교리체계에 나오는 용어이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는 『화엄경』이 유포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해인에 대한 독특한 인식과 믿음의 형성되었다. 불교적 용어인 해인이 불타(佛陀)의 정법(正法)을 상징하는 개념에 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물건으로 상징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라의 의상(義相, 625 - 702) 스님이 『화엄경』의 요체를 독창적인 도상(圖像)으로 그려 「법계도(法界圖)」를 작성한 일이다. 이 도상은 불법(佛法)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재도 한국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문양으로 인정받는다. 의상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보장받기 위해 의상스님에게서 법계도인(法界圖印)을 받았다는 주장이 와전되면서, 점차 해인이 특별한 물건 또는 보물로 믿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의상스님의 법손인 순응(順應)에 의해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사찰

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해인사(海印寺)가 창건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이 일이 해인이라는 보물에 대한 일반인의 상상력과 결부되면서 후대에 이르러 더욱 신비화되었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해인사가 해인(海印)이라는 성물(聖物)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해인사가 해인의 성(聖)스러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찰이며, 나아가 해인이라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해인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임진왜란을 겪은 다음 18세기 중엽 무렵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진록(壬辰錄)』의 여러 이본(異本) 가운데 하나인 「흑룡일기」이다. 여기서 해인은 후정대사가 묘향산의 옥석(玉石)으로 만든 “천지造化(天地造化)와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일월도수(日月度數)와 강산정기(江山精氣)와 둔갑장신(遁甲藏身)하는 법을 모아 새긴 물건”으로 묘사된다.

더욱이 사명당이 해인을 사용하여 일본 왕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승되며, 해인은 훗날 다시 한번 사용될 날을 기다리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경판 속에 감추어졌다고 전한다. 이처럼 오랜 구전(口傳) 과정을 거쳐 해인이라는 보물에 대한 신앙이 역사에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해인신앙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해인신앙이 어떤 연원을 거쳐 형성되고 체계화되는지를, 이른바 비결(秘訣)과 관련된 진인신앙(眞人信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다.

나아가 해인신앙이 체계화되는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찾아본 다음,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인신앙이 한국 신종교의 다양한 교리체계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믿어져 왔는가를 고찰해 보겠다. 결론에서는 한국 종교사에서 해인신앙이 갖는 위상을 자리매김해 보겠으며, 해인신앙이 가지는 의의를 찾아본다.

『정감록』의 개요

『정감록(鄭鑑錄)』은 조선시대 이래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다. 여러 가지의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의 모음집이며, 이본(異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감록』에 포함되는 문헌으로는 각종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결(鑑訣)」을 포함하여,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 「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 「동국역대본궁음양결(東國歷代本宮陰陽訣)」, 「무학비결(無學秘訣)」, 「도선비결(道仙秘訣)」, 「남사교비결(南師古秘訣)」, 「도정가장비결(土亭家藏秘訣)」, 「삼도봉시(三道峰詩)」, 「옥룡자기(玉龍子記)」 등 수십 가지가 있다.

『정감록』의 저자나 그 성립 시기에 대한 여러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감록』은 반왕조적이며 현실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선시

대 이래 금서(禁書)에 속하였지만, 민간에서는 은밀히 전승되었다.

『정감록』은 정도전(鄭道傳, 1337 - 1398)이 조선왕조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합리화하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저술한 책이라는 일부의 추측도 있다. 그러나 『정감록』이 특정 인물에 의한 저술이 아니라는 사실은, 내용이 다양한 수십여 편의 비결들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정감록』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술되어 있으며, 사상적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흔히 『정감록』은 몰락한 지식인 계층의 인사들이 풍수지리설이나 음양오행설에 관한 지식을 동원하여 왕조교체와 사회변혁의 당위성을 우추론에 입각한 운세법칙(運世法則)에 연관하여 설명한 책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정감록』이 지닌 반왕조적인 성격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쇄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사자들의 의도와 성향에 따라 끊임 없이 첨삭이 가해졌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감록』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고 개인적인 자기 보전에 급급하였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보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진다.

『정감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난세에는 풍수설에 따라 지정된 피난처에서만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씨(鄭氏) 성(姓)을 지닌 진인(眞人)이 출현하면 이씨(李氏)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그 표현기법은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은어(隱語), 우의(寓意), 시구(詩句), 파자(破字) 등을 사용하여 해석이 난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정감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정감록신앙'이란 '정씨(鄭氏) 성(姓)을 가진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미래국도를 실현하고, 지복(至福)의 터전을 이룩한다는 신앙'이다. 따라서 정감록신앙은 「감결」, 「정비록(徵秘錄)」, 「감인록(鑑眞錄)」 등에 나타나는 “이망정흥(李亡鄭興)”이라는 예언적 구절에 근거한다. 나아가 정감록 신앙자들은 계룡산에 등장하는 정씨 왕조의 800년 통치에 이어 가야산에는 조씨(趙氏) 왕조가 세워지고, 완산(完山)에는 범씨(范氏)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정감록』에는 해인(海印)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다른 비결서로 전하는 『격암유록』에는 해인(海印)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자주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야기의 논리적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해(南海)에서 진인(眞人)이 나올 것이라는 『정감록』의 글귀가 『격암유록』에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데, 『격암유록』에는 남해에서 진인이 해인(海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정감록』이 『격암유록』보다 앞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 구조를 지니면서 특정한 내용이 더욱 자세히 보충되었다면, 일단 특정한 내용이 보충되기 이전의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서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택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3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장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지난호에 이어서)

선정(禪定)에 들어 먼저 책이 보이고, 처음에 눈앞에 나타난 귀절은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여 문밖을 놓쳤더라면 그다음 귀절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후에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에 감춰진 엄청난 비밀을 찾아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仙佛家眞修語錄 仙佛家宗語錄》
선불가진수어록 선불합중어록
仙佛道始終之戒 淫殺盜也
선불도사중지계 음살도야
선도와 불도의 처음이나 마침이나 지켜야 할 계는 음행하고 살생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귀절이다. 음행하고 살생하고 도적질하는 지는 도를 구할 자격이 없다. 그런 행동, 그런 언어, 언어나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도 이것

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도(道)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절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의 처음이나 마침이나……」

선도라고 하니가 불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그 근본을 따져 보면 똑같은 것이다. 굳이 분류하여 논한다면 도라는 것은 유(儒)와 불(佛)과 선(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결국 유불선은 다 불여진 이름이요, 진실한 도(道) 하나만 나오게 되면 이들 셋의 이름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모름지기 그 이름에 집착하여 뜻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음이나 마침이나 그 계(戒)는 같은 것이다.」 깊이 새겨 불수록 사무치는 귀절이다. 그렇다. 참다운 도(道)란 하나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자유롭게 만행(萬行)을 해도 결림이 없으리라고 한번 잘못 생각하여 이 계를 놓치게 되면 평생의 공덕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해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를 행하는 자의 근본 자세는 청정한 계행(戒行)에 있다. 이것은 결단코 낡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새기고 또 새겨야 할 황금을(黃金律)이다.

若戒行清淨 邪慢永絕即 眞師自降
악계행청정 사만영절 즉 진사자강
만악 계행이 청정하고, 사퇴되거나 오만함이 영영 끊어진다면 진실한 스승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廢戒自滿自 千拜萬告 眞師何感乎
폐계자만자 천배만고 진사하감호
계를 폐하고 자만하는 자는 천 번 절하고 만 번을 고한들 어찌 진실한 스승이 감응하겠는가?

小少出家 修道爲自然 不遇眞師
소소출가 수도위명연 불우진사
일찍이 젊어서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고 이름하나 진실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皓首無成 其罪何在
호수무성 기죄하재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도를 이루지 못하니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都市不守戒之大悖也 不虛心之自失也
도시불수계대패야 불허심지자실야

모두 다 계를 지키지 못하여 크게 거스른 까닭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스스로 실패한 것이다.

憤之憤之 佛法者解脫 生老病死之道也
신지신지 불법자해탈 생로병사지도야
이를 삼가고 삼가하라. 불법(佛法)이란 나고 늙고 병나고 죽는 이것을 해탈하는 도이니라.

그렇다. 불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것을 초월해 보자는 것이다. 그 굴레를 벗어나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성인(聖人)이라 하는 사람들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해결하고 있는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해결했는가? 승복 입고 머리 깎은 이들은 다 해결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道(道)란 무엇인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오늘날

과 같이 탐진치(貪瞋癡)에 찌들은 이런 불품 없는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이 본래 부처님였으며 본래 신선이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법계(法界)를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왕래하며 한 가지 밝은 지혜로써 이 모든 우주의 법을 다 통하는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래의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와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육도윤회(六道輪廻)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근본은 지존(至尊)하신 부처님인지라 하루 바빠 자신 속의 부처를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인 것이다. 그렇게 목(來來面目)이며, 불성(佛性)이며, 그 성품을 가리켜 성(聖)이라 한다.

그 곳에 이르는 길(道)에는 크게 셋이 있다. 이름하여 유불선이다.

儒聖之任 유즉성지임
유교는 성스러움의 임(任)이요,
釋聖之化 석즉성지화
선도는 성스러움의 화(化)요,
仙聖之和 선즉성지청
선도는 성스러움의 청(淸)이다.
청은 최상의 것을 뜻한다.

清屬智 和屬仁 任屬勇
청속지 화속인 임속용
청은 지혜에 속하고 화는 어짐에 속하고 임은 용기에 속한다.
全體之大道也
전체지대도야
이는 전체의 큰 도(道)이다.

유교는 성스러움에 임하는 것이라 했다. 말하자면 입문(入門)하는 격이다. 불교는 성스러움에 조화(調和)하는 것이다. 성스러움에 친해지는 것을 말한다. 선(仙)은 성스러움이 맑게 드러나는 것이다. 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선(仙)을 통해서 유(儒)와 불(佛)은 통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유불선을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름하여 대도(大道)라 하는 것이며, 대도가 나와야 인생의 근본문제인 생로병사(生老病死)가 해결된다. 그저 아픈 마음의 위료가 아니라,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온갖 인생고(人生苦)의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이며, 진실한 도의 시작이며 또한 마침이다.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 중생(衆生)들이 불법승(佛法僧)을 삼보(三寶)라 하여 귀의처(歸依處)로 삼고 그 곳에 의지하는 것은 참이 아닌 사되고 거짓된 법이다. …

(계속)*